

# “M&A 원하면 KMX로... 한국의 ‘유니콘 기업’ 꿈꾼다”

(중소기업)

**인터뷰**  
한국M&A거래소 이창현 회장

**KMX 한국M&A거래소**  
KOREA M&A EXCHANGE

중소 전문 플랫폼... 2년내 상장 추진  
내년 50건의 인수합병 성사시킬 것  
3500개 기업 ‘내부 매칭’ 경쟁력 ↑

한국 인수합병(M&A)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살기 위해’ 인수 또는 합병을 원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중소기업 전문 인수합병(M&A) 플랫폼 한국M&A거래소(KMX)는 내후년 코스닥 상장을 추진한다. 한국의 ‘유니콘 기업’을 꿈꾸는 이창현 한국M&A거래소 회장을 만났다.

◆ “니혼 M&A 센터와 MOU”

이창현 KMX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가진 그룹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25건, 내년에는 50건의 M&A를 성사시킬 것”이라며 “KMX는 매년 2배씩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4년 영업을 시작한 KMX는 매년 시장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지난

해 성사시킨 M&A 건수는 10건이고, 매달 100건 이상의 의뢰가 들어오고 있다. 중소기업 사이에선 ‘M&A를 원하면 KMX로 가야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KMX의 경쟁력은 ‘내부 매칭’제도에 있다.

이 회장은 “대형 회계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M&A 의뢰 기업은 30~40개에 불과해 매칭이 힘들기 때문에 간략한 회사 정보를 담은 티저를 만들어 외부로 돌리게 된다”면서 “이런 경우 시간이 많이 들고 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어 기업들이 선호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KMX는 3500개의 매물 기업의 데이터베이스(DB)가 쌓여있기 때문에 내부 매칭이 충분히 가능한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KMX는 지난 2월 삼성증권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중소·중견기업 매물을 공유키로 한데 이어 오는 25~27일에는 일본 M&A 전문 중개기관인 니혼(Nihon) M&A 센터와 MOU를 맺는다. 이 회장은 “니혼M&A센터는 기업은행, 산업은행과 MOU를 맺고, 우리를 직접 찾아와 MOU를 원했다”면서 “그만큼 KMX의 가치가 인정받고 있다”고 했다.

앞으로 계속해서 커질 M&A 시장에서 그의 역할이 막중해졌다. M&A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우선과제다. “M&A는 매수 매도 양쪽 모두 승리가 되는 게임”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그는 “실리콘밸리의 경우 매도를 위해 창업하기도 한다”면서 “한국은 M&A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노조들이 반대부터 하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M&A를 하지 않으면 모두가 잘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M&A는 투자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촉매제의 역할도 한다. 벤처캐피탈(VC)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VC가 자금을 회수(엑시트)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공개(IPO)가 거의 유일한 상황이다. 하지만 1년에 상장하는 기업은 많아야 30개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M&A를 통한 엑시트가 활성화되면 VC들은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유니콘 기업될 것”

향후 M&A 시장은 커질 전망이다. 기업 사정이 안 좋아져서 내놓는 매물도 늘어나고, 기업승계를 포기해야 하는 기업도 늘고 있어서다.

지난해 KMX로 기업 매도를 의뢰한

730개 기업 중 118개(16.2%)사가 기업승계를 할 수 없어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기업승계 포기형 M&A’다.

이 회장은 “중소기업은 과세특례제도를 통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7년간 업종을 바꾸면 안되고, 구조조정을 하면 안되는 등 제약이 있다. 그것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7080세대들이 세금 등의 문제로 기업 승계를 포기하는 경우가 줄고 있다”면서 “향후 2~3년 내 기업승계형 M&A 비중이 20%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10년 간 이 회장이 꾸려온 KMX는 상장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조만간 주간사 선정을 통해 내후년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회장의 목표는 ‘유니콘 기업’이 되는 것이다.

이 회장은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니혼M&A센터는 현재 시가총액이 5조원을 넘어섰다”면서 “그와 동일한 구조를 가진 한국M&A거래소도 비슷한 가치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상장에 성공하면 글로벌에서 2번째 중소기업 M&A 중개기업 상장 사례가 된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금리인하 가능성에도 은행권 반색

예대금리차 오히려 개선 효과  
건전성 우려도 완화될 전망

미국은 물론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진 가운데 통상적으로 금리인하가 은행실적에 부정적이라는 공식이 바뀌고 있다.

17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예대금리차는 잔액 기준 2.30%로 기준금리 인상 전인 지난해 10월 대비 오히려 2bp(1bp=0.01%포인트) 하락했다.

일반적으로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상승이 호재, 금리하락이 악재다. 금리가 오르면 은행들이 대출금리에 즉각 반영하면서 예대마진을 늘릴 수 있어서였지만 호재가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했다. 오히려 금리인상 이후 예대금리차가 하락하면서 은행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악재와 호재를 뒤바꾼 것은 경기침체와 함께 강화된 규제다. 경기호황이 아닌 경기하강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해야 할 시기에 금리를 올린 탓이다.

키움증권 서영수 연구원은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 인



17일 서울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68포인트(0.22%) 내린 2,090.73에, 달러-원 환율은 전일보다 1.2원 오른 1,186.5원에 장을 마감했다. /연합뉴스

상한 데다 예대율 규제 강화로 조달금리는 상승하고 있는 반면 시중금리 하락으로 운용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예대금리차가 하락 추세를 보였다”며 “기준금리 하락으로 은행의 조달금리가 하락하면 예대금리차는 상당 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창립제69주년 기념사를 통해 미·중 무역분쟁 격화와 반도체 경기회복 지연 가능

성을 우려하며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 총재는 “아직 금리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금리인하와 관련해 명확히 선을 그어왔다.

시장금리는 이미 금리인하 기대감이 반영됐다. 이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 14일 1.470%까지 낮아져 1.5%를 밑돌았다. 3년물 금리가 연 1.5%대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6년 11월 이후 2년 7개월 만으로 기준금리가 한 번 인하됐을 때 금리 1.5%보다 낮은 수준이다.

경기침체기에 금리가 인하될 경우는 은행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다소 완화될 수 있다.

서 연구원은 “은행에 이어 비은행까지 DSR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계채무자를 중심으로 신용 경색 현상이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대출규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다소 완화해 은행의 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침체를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 5월 코픽스 하락... 주담대 금리 떨어질 듯

잔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전월보다 0.01%포인트 하락했다. 코픽스 금리가 조정됨에 따라 코픽스에 연동하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도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월 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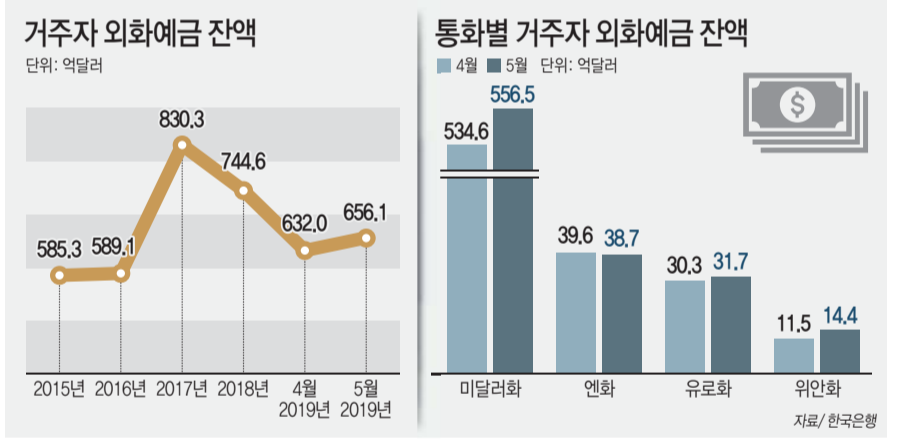
기준 코픽스가 2.00%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하락했다. 잔액기준 코픽스는 올해 4월 2.01%로 하락세로 돌아선 뒤 두 달 연속 내렸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월과 동일한 1.85%다.

한편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

한수신상품의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한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일반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되지만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월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잔액 기준 코픽스보다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된다. /나유리 기자 yul115@



## 환율상승 기대감... 달러예금 24억달러 ↑

경기불안에 개인 달러 구입 늘어나

환율상승(원화값 하락) 기대감으로 5월 달러화 예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 추가상승 기대로 기업들이 달러를 팔지 않고, 경기불안에 달러를 사려는 개인의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5월중 거주자 외화 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거주자 외화예금은 656억1000만달러로 전달보다 24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올해 1월 말 745억2000만달러였던 외화예금 잔액은 석달 연속 하락하며 4월 말 632억달러를 기록하다 5월 반등했다.

기업예금(517억3000만달러)은 17억7000만달러, 개인예금(138억8000만달러)은 6억4천만달러 늘었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이다.

특히 달러화 예금은 21억9000만달러 늘어나 556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통상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 매도 수요가 몰려 달러화 예금이 감소한다. 그러

나 지난달에는 환율이 오른 동시에 달러화 예금잔액도 늘었다.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1190.9원을 기록하며 전달(1168.2원)보다 22.7원 올랐다.

기업의 달러화 예금잔액은 14억4000만달러 증가한 43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수출기업들이 환율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달러의 매도시기를 늦춘 탓이다.

개인의 달러화 예금잔액은 120억4000만달러로 7억5000만달러 늘어났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개인자산가들이 달러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5월 말 기준 달러화예금 중 개인 비중은 21.6%로 2012년 6월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한국은행은 “기업들이 환율 추가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현물환 매도를 늦춘 경우가 많았다”며 “환율 상승과 관련한 보도가 늘고 금융 상품도 잇따라 출시되면서 달러 투자에 대한 개인 수요도 늘어났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